



메트너 서거 70주년 기념 제2회 한국메트너협회 정기연주회

글 이세은 사진제공 한국메트너협회

니콜라이 메트너가 활동했던 20세기 초는 전통을 거부하고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는 예술적 시도가 대두되는 시기였다. 그 속에서 메트너는 당대에 활동했던 프로코피예프·스트라빈스카·스크리아빈 등과 달리 '고전'을 고수하며, 보수적인 음악 스타일 속에서도 자신만의 풍부한 드라마를 만들어나갔다.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지만 비르투오조의 삶보다 오로지 작곡에 집중하며 자신의 음악을 묵묵히 써 내려간 메트너. 그의 선율이 흐르면, 아름다움을 향하는 이유 있는 고집에 마음과 머리가 함께 끄덕여진다.

작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에 이어 올해도 음악가 생몰(生歿)을 기념하는 이벤트들을 여럿 볼 수 있다. 생상스 서거 100주년,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 스트라빈스키 서거 50주년 등등. 기억해야 할 이름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러시아 피아니즘의 계보를 잇는 작곡가 니콜라이 메트너(Nikolai Medtner, 1880-1951).

6월 25일, 한국메트너협회가 제2회 정기연주회로 '메트너 서거 70주년 기념 연주'를 일신홀에서 선보인다. 협회 설립자인 피아니스트 신해신으로부터 이번 연주와 더불어 메트너의 작품과 삶, 협회 설립 의의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번 공연은 <삶의 여정>이라는 부제 아래 메트너의 일생과 음악을 소개하는 레처 콘서트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메트너가 주로 작곡했던 장르에서 대표적인 작품들을 선별해 전반적인 그의 음악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에는 특별히 메트너의 삶을 연대순으로 풀어가면서 대표작들을 함께 소개하려고 한다. 메트너의 미학관과 작곡 스타일에 대한 해설은 메트너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프로그램은 메트너 작품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두 개의 동화(Skazka, 2 Fairy Tales), Op.20'와 '회상 소나타, Op.38', 그리고 푸슈킨 시에 곡을 붙인 성악곡 '뮤즈, Op.29-1'과 '보칼리즈 모음곡,

Op.41-2'이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라흐마니노프와 라벨의 보칼리즈는 비교적 짧고 단순한 형식을 보이는 반면, 메트너는 보칼리즈에 소나타 형식과 모음곡 형식을 각각 결합시켜 다악장의 'Op.41'을 완성했다. 나와 함께 협회 회원인 피아니스트 최한나와 구민희, 그리고 소프라노 이한나가 게스트 아티스트로 함께 한다."

러시아 혁명 발발 이후 많은 예술가들이 그랬듯, 메트너는 고국을 떠나 독일과 프랑스를 거쳐 영국 런던 근교에 정착,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러시아를 떠나기 전 모교인 모스크바 음악원에 서약 7년간 가르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서도 교편을 잡지 않고 오로지 작곡에만 몰두했다. 그는 당대의 혁명적 예술사조를 따르지 않고 친구인 라흐마니노프와 함께 러시아 전통의 낭만음악을 지켜나갔다. 독일 음악에도 많은 영향을 받은 그는 예술에는 절대적이며 불변하는 법칙이 존재하며, 한 소설, 한 단락, 한 악장을 구성해감에 있어 그 법칙에 따른 구조와 형식을 구축해야 한다고 믿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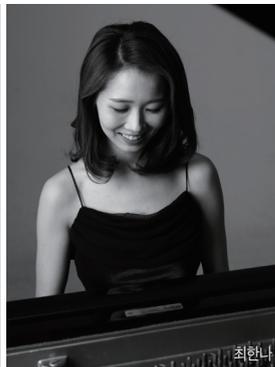
"독일계 러시아인이었던 메트너는 가문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괴테와 푸슈킨 등 독일과 러시아 문학에 심취했으며 이탈리아 건축물에도 조예가 깊었다. 음악적으로는 스스로를 베토벤의 제자라 여겼고, 고전주의와 이상주의에 가까운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또 자신의 미학관을 담은 <뮤즈와 유행>이라는 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메트너는 낭만주의 시대의 절대음악 사조에 가까운 사상을 추구했지만, 그의 음악에는 문학과와의 연관성 또한 많이 드러나며 러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예술관에 큰 영향을 끼쳤다. 베토벤과 브람스 작품에서 보이는 형식미, 모티브 발전 기법, 대위적 기법, 슈만의 곡이 연상되는 두터운 텍스처, 선법적 색채와 독창적인 리듬의 사용이 합쳐져 메트너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보여준다. '낭만주의의 20세기형 진화 혹은 하이브리드'라고 감히 소개하고 싶다."



신해신



구민희



최한나

2016년 런던에서 열린 제1회 메트너 국제 페스티벌은 한국메트너협회를 발족한 계기가 되었다. 서울대 동문인 신해신과 최한나, 두 사람이 페스티벌에서 우연히 발표자로 다시 만나게 된 것. 메트너의 음악과 사상에 매료된 두 음악가는 이후 국내외에 메트너를 더욱 널리 알리고자 그해 한국메트너협회를 설립해 꾸준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보스턴 유학 시절, 처음으로 메트너의 작품을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나에게도 처음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작곡가였는데, 작품 하나하나를 들여다볼수록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다.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취향 저격이라고나 할까. 메트너의 작곡 기법이나 스타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기에 처음 공부할 때는 정말 난감해서 메트너에 관한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메트너 국제 페스티벌 소식을 듣고 배움의 기회라 생각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고, 이후 협회까지 설립하게 되었다. 모스크바 메트너 아카데미에서 리서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메트너의 손때 묻은 노트, 자필 악보, 그가 직접 악보에 남긴 메모들을 보면서 시공간을 뛰어넘어 그와 만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는 다정한 친구와 신사의 모습으로, 세상 물정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예술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는 신념과 고집을 지녔던 예술가 메트너의 모습을 더 깊이 알게 됐다.”

메트너는 특히 피아노 작품을 많이 남겼다.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던 라흐마니노프는 메트너를 동시대 작곡가 중 최고로 꼽으며 같은 예술적 이상을 바라보는 동지로서 그를 열렬히 지지했다. 신해신은 “메트너의 음악은 그가 예술에 대해 가졌던 진정성, 순수성, 성실성 모두를 드러낸다. 파괴적이지 않고, 따뜻함을 준다”라고 말하며 ‘회상 소나타’를 회상했다.

“내가 처음 무대에 올린 독주곡이 바로 ‘회상 소나타’이다. 이른바 ‘회상주제’를 소나타의 앞머리에, 그리고 발전부 직전과 소나

타의 끝부분에 배치함으로써 ‘회상 혹은 추억’이라는 관념을 음악적으로 발현시킨 이 참신함에 크게 감탄했다. 이 순환 주제는 엔딩 후 많은 여운을 준다. 메트너는 최소 단위의 음악적 모티프를 큰 형식으로 발전시키는, 굉장히 경제적인 작곡 스타일을 보여준다. 건축 도면을 연상시키는 듯 꼼꼼히 설계된 구성과 형식을 보면 왜 타네예프가 메트너를 ‘소나타 형식과 함께 태어났다’라고 평가했는지 알 것도 같다. 메트너는 총 14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썼는데, 다양한 형식 구성(단악장, 다악장)과 캐릭터, 분량과 완성도를 생각할 때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업적이다.”

많은 예술가들이 모든 전통을 거부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가운데, 메트너가 가졌던 미학관은 당시 낡은 것으로 여겨졌다. 이것은 마치 마티스와 피카소 시대에 렘브란트 화풍의 작품을 발표하는 것과 같았다. 메트너 사후, 그의 작품은 피아니스트 마르크 앙드레 아를랭의 레코딩과 리사이틀이 물꼬가 되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피아니스트 베레조프스키, 다닐 트리포노프,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등도 메트너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그 진가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멘델스존이 바흐의 마태 수난곡을, 카잘스가 무반주 모음곡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며 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다. 물론 모든 작품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다양한 작곡가와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보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최근 흑인 작곡가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사회적,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지, 아니면 지속적인 연구로 이어질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흐름 가운데 많은 작품들이 재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작품을 발견하는 것은 연주자 본인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다음 세대 연주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